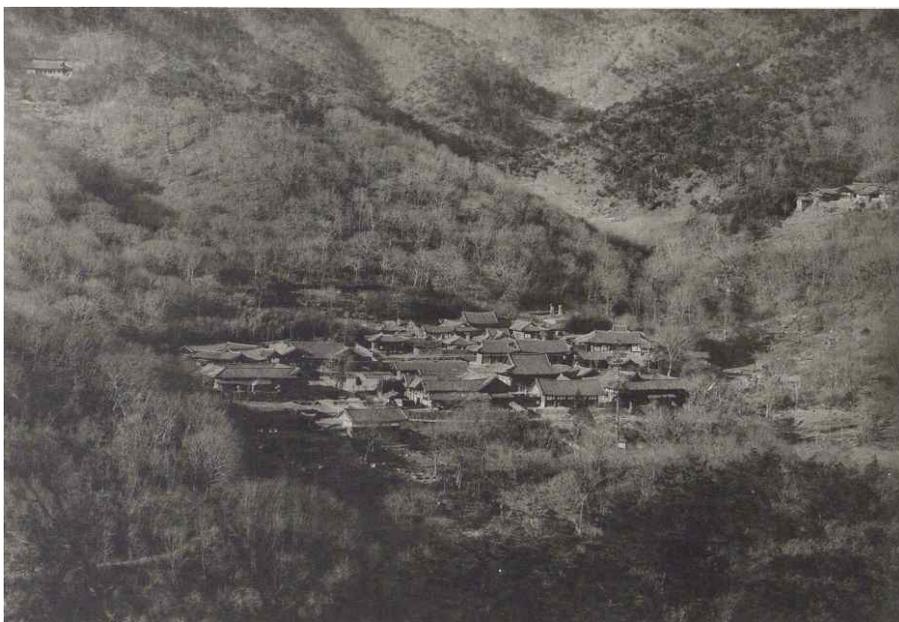


順天 曹溪山
仙巖寺古文獻集

法雲 柳基松 編

傳統寺刹研究會



선암사 [순천 쌍암면]
[조선고적도보 조선총독부, (1915~1933)]



대웅전
[조선고적도보 조선총독부, (1915~1933)]



대웅전 추녀
[조선고적도보 조선총독부, (1915~1933)]



대웅전 불단
[조선고적도보 조선총독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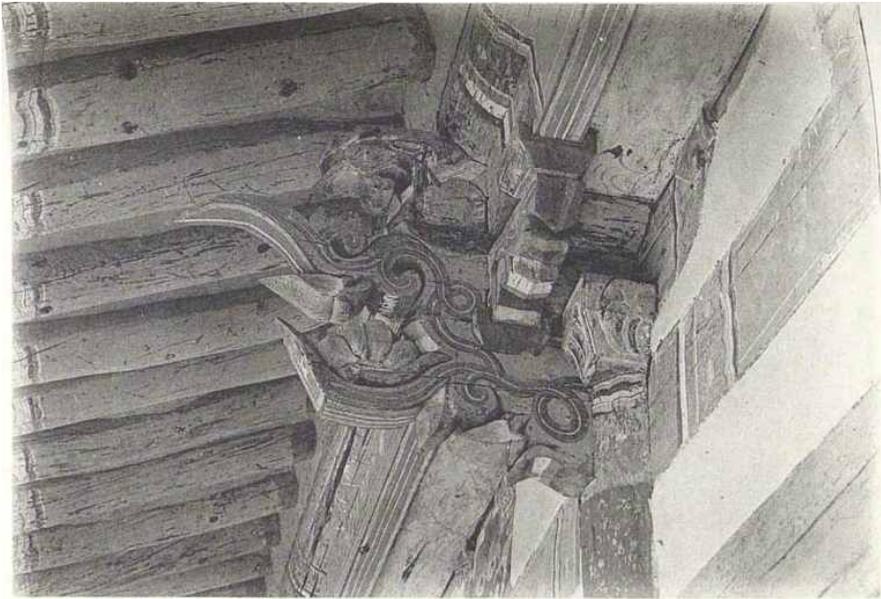
일주문
[조선고적도보 조선총독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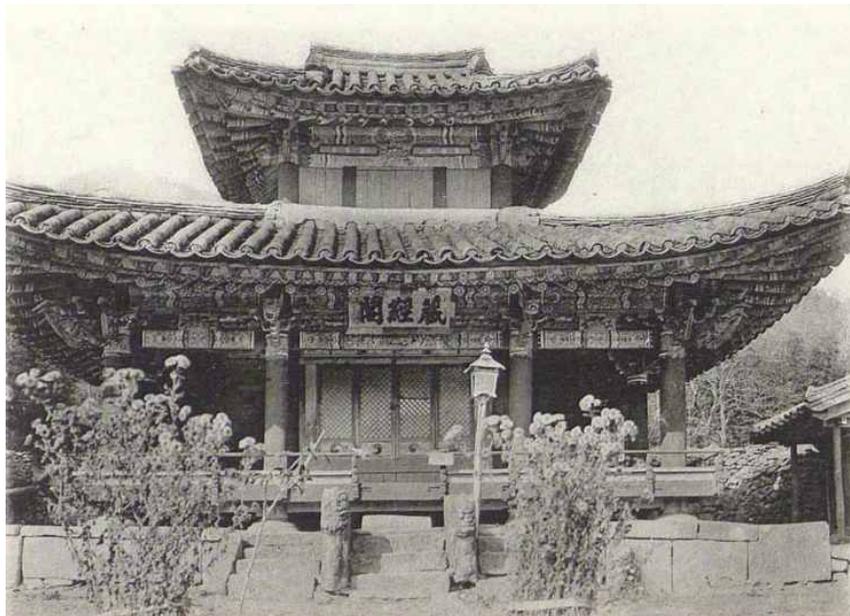
원통전 측면
[조선고적도보 조선총독부, (1915~19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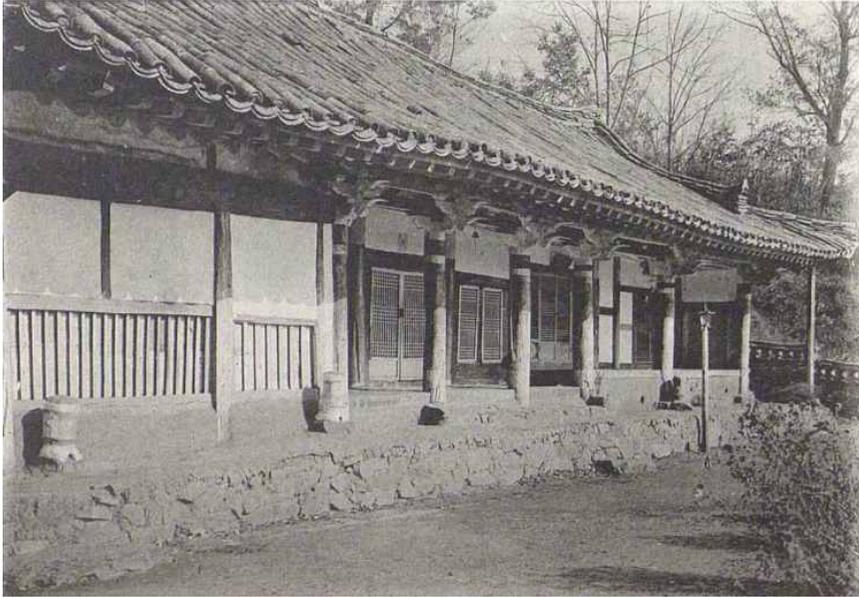
팔상전
[조선고적도보 조선총독부, (1915~1933)]



팔상전 추녀
[조선고적도보 조선총독부, (1915~19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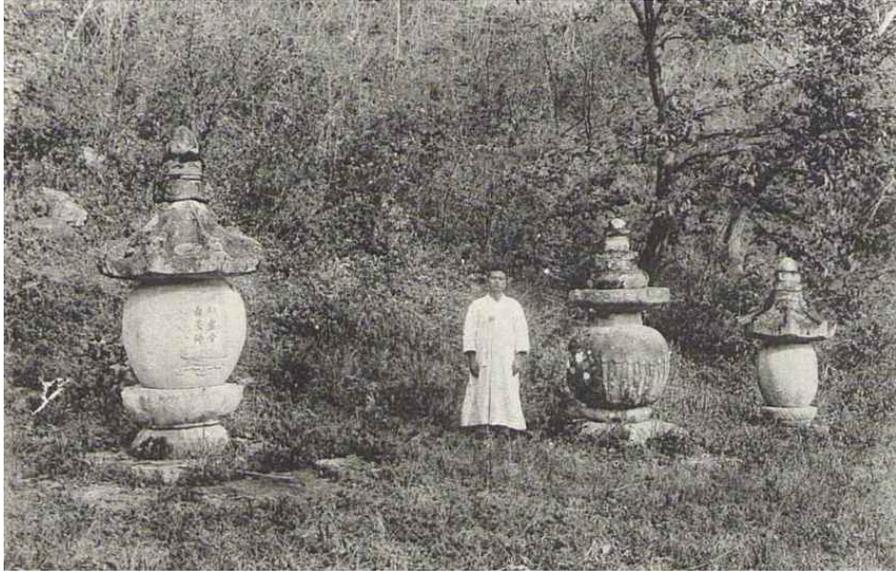
장경각
[조선고적도보 조선총독부, (1915~1933)]



선암사 선조암
[조선고적도보 조선총독부, (1915~1933)]



묘담군(1)
[조선고적도보 조선총독부, (1915~1933)]



묘탑군 (2)
[조선고적도보 조선총독부, (1915~1933)]



향서당 묘탑
[조선고적도보 조선총독부, (1915~1933)]



호암당 묘탑
[조선고적도보 조선총독부, (1915~1933)]



선암사 중수비
[조선고적도보 조선총독부, (1915~1933)]

목 차

1. 사 서(史 書) 1
 - 1.1 고려사(高麗史) 1
 - 1.2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1
 - 1.3 동국통감(東國通鑑) 1
 - 1.4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2
 - 1.5 일성록(日省錄) 4
 - 1.6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5
 - 1.7 범우고(梵宇攷) 5
 - 1.8 조선사찰삼십일본산사진첩(朝鮮寺刹三十一本山寫眞帖) 5
 - 1.9 조선사찰사료(朝鮮寺刹史料) 6
 - 1.10 조선총독부관보(朝鮮總督府官報) 9
 - 1.11 기 타(其 他) 10
 - 1) 仙巖寺雜役矯革節目 10
 - 2) 仙巖寺蹟抄 12
2. 시 문(詩 文) 13
 - 2.1 시(詩) 13
 - 1) 선암사(仙巖寺) 13
 - 2) 제선암사함경대사진정(題仙巖寺涵鏡大師眞幀) 14
 - 3) 방선암사(訪仙巖寺) 14
 - 4) 선암사(仙巖寺) 14
 - 2.2 산 문(散 文) 14
 - 1) 순천선암사대승암중수기(順天仙巖寺大乘菴重修記) 14
 - 2) 유선암사기(遊仙巖寺記) 15
 - 3) 답순천선암사금봉당명연서(答順天仙巖寺錦峯堂乘演書) 17
 - 2.3 금석문(金石文) 18
 - 1) 승평부조계산선암사중수비(昇平府曹溪山仙巖寺重修碑) 18
 - 2) 선암사대각암순치명동중(仙岩寺大覺庵順治銘銅鐘) 26

- 3) 선암사범종각강희명동종(仙岩寺梵鐘閣康熙銘銅鐘) 27
 - 4) 선암사승선교비(仙岩寺昇仙橋碑) 30
 - 5) 순천선암사상월당새봉대사비문(順天仙巖寺霜月堂靈筭大師碑文) 31
3. 정기간행물(定期刊行物) 39
- 3.1 신문(新聞) 39
 - 1) 동아일보 39
 - 3.2 잡지(雜誌) 39
 - 1) 조선휘보 39

1. 사 서(史 書)

1.1 고려사(高麗史)

세가 충선왕복위(1308)년 10월 기축일.

궁궐 중문에 다음과 같은 방을 붙였다. “왕륜사(王輪寺) 주지(住持) 인조(仁照), 용암사(龍岩寺) 주지 용선(用宣), 선암사(仙巖寺) 주지 약굉(若宏) 및 최단(崔湍)·권한공(權漢功)·김지겸(金之兼)·김사원(金士元)·최성지(崔誠之)·환이(桓頤)·오현량(吳玄良)·강방언(姜邦彦)·이진(李珍)·강융(姜融)·조통(趙通)·조적(曹頔)·조석(曹碩)·최현(崔玄)·정자우(鄭子羽)·최중공(崔仲公)·문점(文沾)·이백겸(李伯謙)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특별히 부르지 않는 한 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다.”

1.2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충렬왕5(1308)년 겨울 10월

중문에 방을 붙여 이르기를, “왕륜사의 주지 인조(仁照), 용암사(龍巖寺)의 주지 용선(用宣), 선암사(仙巖寺)의 주지 약굉(若宏)과 최단(崔湍)·권한공(權漢功)·김지겸(金之謙)·김사원(金士元)·최실(崔實)·환이(桓頤)·오현량(吳玄良)·강방언(姜邦彦)·이진(李珍)·강융(姜融)·조통(趙通)·조적(曹頔)·조석(曹碩)·최현(崔玄)·정자우(鄭子羽)·최중공(崔仲公)·문점(文沾)·이백겸(李伯謙)을 제외한 사람들은 특별히 부르지 아니하면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였다.

1.3 동국통감(東國通鑑)

高麗紀

충렬왕34(1308)년 겨울 10월

중문(中門)에 방(榜)을 붙였는데, 이르기를, “왕륜사(王輪寺)의 주지(住持) 인조(仁照), 용암사(龍巖寺)의 주지 용선(用宣), 선암사(仙巖寺)의 주

지 약평(若宏) 및 최유(崔濡)·권한공(權漢功)·김지겸(金之謙)·김사원(金士元)·최실(崔實)·환이(桓頤)·오현량(吳玄良)·강방언(姜邦彦)·이진(李珍)·강융(姜融)·조통(趙通)·조적(曹頤)·조석(曹碩)·최현(崔玄)·정자우(鄭子羽)·최중공(崔仲公)·문점(文沾)·이백겸(李伯謙)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특별히 부른 것이 아니면 들어오지 못한다.” 하였다.

1.4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정조6(1782)년 4월 8일

金宇鎮, 以戶曹言啓曰, 因內需司草記, 順天仙巖寺, 屬之本司, 沃溝免稅移給事, 有許施當否, 參量草記之命矣。此旣本司免稅中移給者, 則與新定劃屬有異, 今年爲始, 依此施行之意, 分付, 何如? 傳曰, 允。

정조7(1783)년 12월 5일

林錫詰, 以戶曹言啓曰, 內需司草記, 順天仙巖寺僧徒疊役頭給事, 據判付內, 本寺屬之本司, 蓋有商量而然, 判付紙地及應下紙地, 續續卜定, 易致弊端, 況願堂寺刹, 一併革罷之後, 代用紙地, 難責經費故耳。名雖屬之內司, 實則爲彼經用, 且是禮戶曹成節目行會之事, 則外方舉行, 豈容如是乎? 以此意枚報該曹, 令該道監司親執詳查, 狀聞後, 稟處。紙地終涉苟簡, 以今經費, 豈辦加質? 他道一刹, 更自禮戶曹相議加劃, 形止草記事, 命下矣。仙巖寺僧徒疊役一款, 卽爲發關該道, 查實狀聞上來後, 當爲稟處, 而他道一刹加劃一款, 往復禮曹, 可合寺刹, 搜問望呈後, 更爲稟啓移劃之意, 敢啓。傳曰, 知道。

정조8(1784)년 2월 4일

趙鼎鎮, 以戶曹言啓曰, 內需司可合紙刹, 往復禮曹, 搜問望呈後, 更爲稟啓移劃事, 前已草記, 允下矣。卽接禮曹移文, 則慶尙道晉州玉泉寺僧徒之富饒, 紙品之潔白, 最合於御供, 紙地寺刹, 以此入啓移劃云。今此玉泉寺, 今年爲始, 劃屬內司, 而一依仙巖寺例, 成節目舉行之意, 分付, 何如? 傳曰, 寺刹劃屬, 出於不煩經費之意, 而依草記施行。本寺如或凋殘, 今[令]本道具由報成後, 更爲草記, 可也。

정조12(1788)년 11월 2일

李亨元, 以戶曹言啓曰, 內需司及壽進宮所屬, 各寺刹免稅結收捧時, 有無弊別單書入草記批旨內, 諸寺免稅結數, 比元案減數處, 詳查釐正, 收捧有弊處, 往復矯弊。諸寺免稅結來歷文迹, 詳錄報來後, 與成冊草記入啓事, 命下矣。各道寺刹來歷成冊, 今纔齊到, 故竝爲捧入, 而其中杆城乾鳳寺, 醴泉大谷寺, 順天仙巖寺等, 諸般僧弊, 旣因特教, 竝皆釐正, 今無可論, 而至於免稅結加減者之查實釐正, 收捧時有弊者之從便矯救處, 修正入錄於別單中, 而淮陽圓通寺免稅, 雖非元案所載, 旣自該道成冊報來, 故一體捧入之意, 敢啓。傳曰, 知道。依前單施行。

정조21(1797)년 3월 21일

李日運, 以戶曹言啓曰, 因內需司單子, 司屬全羅道順天仙巖寺陳荒田四結五負, 自今年免稅事, 判付內, 今道臣, 嚴飭除弊, 俾無如前侵困之弊, 免稅一款, 令該曹, 草記稟處事, 命下矣。內司宮房所屬寺刹田畝, 多有免稅之例, 況此仙巖寺陳田四結五負, 旣是年久荒廢處, 則有不當一例徵稅, 而僧徒呼訴, 有難準信, 令本道元田結數及陳廢與否, 更爲詳查, 年久荒廢的實, 則自今年爲始, 免稅之意, 分付, 何如? 傳曰, 允。

순조8(1808)년 10월 15일

金宗善, 以奉常寺都提調·提調意啓曰, 本寺國用栗木封山, 依舊例更定於全羅道順天府曹溪山之意, 回啓蒙允後, 發遣郎廳摘奸, 則山勢幽淨, 栗木森密, 實合封山。故已爲封標定界, 而其所禁養之道, 專屬於僧民, 然後可以培植守護, 仙巖寺及山庵僧徒, 標內居民, 移屬本寺, 一依鷲谷·雙溪封山例, 成節目下送, 凡干雜役, 一竝蠲減, 以爲長養栗木之意, 分付道臣, 使之知委舉行, 何如? 傳曰, 允。

순조8(1808)년 12월 26일

金蒼根, 以奉常寺都提·調意啓曰, 向因全羅道順天府仙巖寺僧徒等上言, 依前四標, 更屬本寺封山之意, 覆啓蒙允, 行關定界矣。今聞標內栗木, 旣甚稀疏, 且極稚短, 雖於屢十年後, 無以合用云, 此必出於僧徒輩, 謀避官役, 圖付本寺之計, 事之駭痛, 莫此爲甚, 以此意, 行會本道, 頃日自本寺下送之關

子及節目，一一推上，而僧徒中首謀者，查出嚴刑，以正冒濫欺蔽之罪，永杜日後更煩之弊，何如？傳曰，允。首倡者，各別勘罪事，分付該道，可也。

1.5 일성록(日省錄)

정조8(1784)년 2월 4

[命玉泉寺紙供令本道具由報成後草記] 戶曹啓言卽接禮曹移文則慶尙道晉州玉泉寺僧徒之富饒紙品之潔白最合於御供紙地寺刹以此入啓移劃云今此玉泉寺今年爲始劃內司而一依仙巖寺例成節目舉行之意請分付教以寺刹劃屬出於不煩經費之意而依草記施行本寺如或凋殘令本道具由報成後更爲草記

정조21(1797)년 3월 21일

[命順天仙巖寺田陳廢與否令本道詳查後自今年蠲其稅] 戶曹啓言因內需司單子司屬全羅道順天仙巖寺陳荒田四結五負自今年免稅令該曹稟處事命下矣內司官房所屬寺刹田畝多有免稅之例況此仙巖寺陳田旣是年久荒廢處則有不當一例徵稅而僧徒呼訴有難準信令本道元田結數陳廢與否更爲詳查的實則自今年爲始免稅之意請分付允之

순조8(1808)년 3월 19일

[判下京外上言于各該司] 又啓言順天仙巖寺僧展翎上言以爲本府栗木封山請定給云封山當否惟在朝家之處分則以僧徒之賤敢煩輦路極涉無嚴請令本道照法重勘允之又啓言順天幼學張得毅等上言以爲故參奉丁淑丁承祖叔姪殉節請褒美之典云請令道臣詳探登聞後更爲稟處允之

순조8(1808)년 8월 16일

[判下京外上言于各該司] 啓言順天曹溪山仙巖寺僧展翎上言以爲己丑年因河東雙溪寺求禮燕谷寺栗木封山之童濯更爲封標於順天仙巖而後因僧徒之流散旋爲革罷矣近來僧徒日繁殆近千名栗木比前尤盛乙丑年敬差官因事回還時歷入本寺躬審形止稟于該寺則提調欲筵稟封標而迄無處分此山以無封標之故栗木四處責納僧徒將至渙散四十里長養之木不得入用於國家而空然見失於潛斫橫侵者請令太常定標封山云本寺進排主材栗木每式年輪斫於三南各邑曾有定式而非但弊及民戶每患欠精故於二去己酉年別定封山於河東雙溪寺求禮燕谷寺等處以爲每式

年斫取之地而舊木已盡新植未長封進甚艱順天曹溪山仙巖寺卽本寺舊封山也栗木宜土爲三南之最而中間革罷至今可惜其後寺屬內需司者不過無主寺刹不堪侵役之致還屬本寺以應進排以除僧弊實合便宜請發遣郎廳摘奸定界一依當初封山例施行允之

순조8(1808)년 12월 26일

[命仙巖寺上言首倡僧徒令該道勘罪]奉常寺啓言向因全羅道順天府仙巖寺僧徒等上言依前四標更屬本寺封山之意覆啓蒙允行關定界矣今聞標內栗木旣甚稀疏且極稚短雖於累十年後無以合用云此必出於僧徒謀避官役圖付本寺之計以此意行會本道頃日自寺下送之關子及節目一一推上而僧徒中首謀者請查出嚴刑允之教以首倡者各別勘罪事分付該道

1.6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全羅道 順天都護府

【불우】 선암사(仙巖寺) 조계산에 있다. ○김극기(金克己)의 시에, “적적한 산 속 절이요, 쓸쓸한 숲 아래의 중일세. 마음속 티끌은 모두 씻어 없었고, 지혜의 물[智水]은 맑기도 하네. 8천 성인(聖人)에게 예배하고 담담한 사괘는 삼요(三要)의 벗일세. 내 와서 뜨거운 번뇌[熱惱] 식히니, 마치 옥병속 얼음 대한 듯하네.” 하였다.

1.7 범우고(梵宇攷) 編者未詳

全羅道 順天

[寺刹]仙巖寺在曹溪山(續)壬辰亂後重勅寺後有北向花其枝屈曲皆向北其花紫色皆必向北故名

1.8 조선사찰삼십일본산사진첩(朝鮮寺刹三十一本山寫眞帖)

財)朝鮮佛教中央教務院 1929

全羅南道順天郡曹溪山仙巖寺

初創新羅法興王十七年庚戌 阿道和尚 自善山桃李寺來 創建而名其山曰清涼 名其寺曰海川，再創新羅之末 道詵國師 按東方裨補圖 重建而更名為仙巖寺，三創高麗宣宗九年壬申 大覺國師重建之 改出名曰曹溪山，四創 朝鮮宣祖三十年丁酉遭兵燹 越六十四年 至顯宗元年庚子 敬岑敬俊文定三師 矢心戮力 歷十數星霜 有建修 至肅宗二十四年戊寅 護巖禪師 膺願而生 克擴大之，五創英祖三十六年庚辰 寺又災 霜月 西嶽禪師 力圖光復 八九年而告竣，六創純祖二十四年甲申 寺又災 海鵬訥庵益宗三禪師 上蒙內帑之賜 下獲檀越之助 凡閱五年而新之



조계산 선암사 전경

1.9 조선사찰사료(朝鮮寺刹史料) 朝鮮總督府 1911

○全南順天郡曹溪山仙巖寺事蹟

解脫法王踵武修建鐘閣車舍廊廡次第安立觀被瓊空之變未滿一夜之分量達此成住之役於焉七年而告功於是乎完然青楊枝未藤杖頤况而勤供儼然紫金像白毫光風稜而增彩佛者處益既遐衆道求其文余非學佛豈慙腐毫許短篇幅於是乎書

崇禎紀元後四回 丙辰小春知府使沈膺泰記

○全南順天郡曹溪山仙巖寺事蹟

余嘗覽崔孤雲所著鳳岩寺智澄碑曰五常分位配勳方者曰仁三教立名現淨域者佛仁心即佛佛自能仁則也導都尼柔順性源達迦衛慈悲敬海空猶石投水兩乘沙然乃至天彭西顧海印東流宜君子鄉染法王之道曰口深又曰深矣又嘗覽雞林古記漢武帝元狩二年庚申遣張騫往西域求佛法獲之也然當是時中國未有佛法之言吾東方則先有佛法由海而漸云云宣帝五鳳甘露年間新羅王建國於雞林傳子傳賢凡易三姓合五十五主歷九百九十二年當是時吾東方始開佛剎之秋也東

朝鮮寺剎史料

二八一

1

立浮屠故此仙岩局內有一鉄佛二寶塔三浮屠至于今存焉者也此廼道說國師始創此寺時以鎮其背走元屹至寶也歟寺之西有大石高十餘丈面如其砥礪號古仙人看碁之場故以仙岩名此寺也自仙岩東南去二十餘里有雲動山虎口穴亦建寺立佛以掩其口故以道說號其庵也若不掩其口則非但此一府境內有多災變雖國家之中亦受其害云云已載於道說記也觀羅代合三韓五百禩王業之興則善行二古聖之言若合一契也宋元豐八年麗朝義天和尙亦入神州晉禮於哲宗大王而後遍奏知識及見淨源公於餘杭慧因院仍設避席之禮源公目其額耳其言欽師法器恨相知之晚也盡傳吾家不二之妙也師事數年受本國王命而歸則哲宗元祐元年也及歸持佛經數千餘軸而來蓋白羅寺留在經也東方賴以廣見也中年栖于海印寺因遊南國諳剎偶然杖屨于茲一顧靈境三嘆遺基爰除林叢經營佛宇不數年間百廢俱興此則麗朝大覺國師之重創也國師沒後三百六十五年遠值赤羅兵燹之

朝鮮寺剎史料

二八三

3

朝鮮寺剎史料

二八二

漢明帝永平七年金人入夢白馬來儀於是佛法始通中國與碑文天彰西顧之言同也唐貞觀十二年慈藏法師隨實寶使金神通入於震旦求法數年晉禮太宗於勝光院拜爲國師隨之終南山觀於圓香禪師香曰三韓鼎足日役干戈塗炭黎民邊烽不息吾嘗入定到于雞林若建諸伽藍及黃龍寺九層塔則必得會三歸一云云又於終南山雲際寺親見曼殊化身得佛頭骨指節與舍利百枚而還本國或安頓骨於通度寺或安舍利于皇龍寺九層塔與月精寺太和寺金山寺當是時增崇梵廟之秋也天寶十年景德大王親佛國寺舉功於大歷九年間有道統禪師尾入中國學於一行訖乃早于東方山水圖行一覽曰山川之背走若此宜爲戰場也遂拔筆向圖中擇三千五百區區落點曰如人有病尋其血脉而針灸也今我落點處建寺塔立浮屠則必得會三教民之主矣訖還本國一一如教此仙岩寺之爲一大禪補所也吾國南有三巖靈若郡月出山之龍岩光陽縣白雞山之雲巖昇平府曹溪山之仙岩若皆建寺塔

2

禍千年寶坊一時焦土一鉄佛二寶塔三浮屠曾經聖人手之至寶空然棄之於羣奔狐兔之嗚也山以之含愁水以之下憤亦有年矣幸山之僧敬俊敬岑文正三大老同發願王接武相承矢圖復古而其後之居斯者歎夕經之營之惟以興復爲事故其寺剎之重新莫若茲時也格此寺之成毀始于古終于今上下千百年之內幾多成而毀毀而成也古云其成也毀也其毀也成也成亦一無窮也毀亦一無窮也茲之謂也其法堂之東則冥府殿藥師殿寂然堂明鏡堂大藏殿青雲堂白雲堂背面堂獨樂堂其西則西方丈彌陀殿霧集堂迎風樓天藏殿地藏殿文殊殿普賢殿龍華堂滿月堂伴仙閣際雲寮星寮栖霞堂省行堂揚子房圍厠其面則正門鍾閣大樓曹溪門其背則瞻星閣國師殿五十殿應真堂八相殿圓通殿能仁殿圓明閣惺寂堂眞疑閣豁然堂寂照堂尋珠閣玩月堂也二十餘房庵宇不闕也其兵火不灰者一鉄佛二寶塔三浮屠與文殊殿圍厠曹溪門此三四所外無跡可尋其相傳者古老野人之口而已其國師

朝鮮寺剎史料

二八四

4

殿則掛國師而香火故也今大法堂佛座下有一石鍾高十餘尺大數圍餘其爲鍾也非但其天然之體可觀也其靈異事亦或有之故爲搆其彌勒殿而累年香火也其時法堂則今古法堂是也蓋因兵火傷石鍾故今改建大法堂於彌勒殿之古墟也如斯言亦出於人口之相傳者也嘗有先師枕肱和尚年未及冠才德已成聲飛入區人願一識可謂叔世之標準祖門之規矩也偶然有時誤觸其體死而復生咄咄嘆曰讚破萬經未遑一忠於是棄翰墨廢講業道途然脫拘攣自方丈來曹溪常燕居阿鍊若玉銜銜錫愚者錙沉豹隱囊括襲明游必於淡合氣於漢不知名譽之可求豈識人事可察忘世間之甲子醉壺裡之乾坤平生計活一衲單瓢孔門顏子自以爲此故號枕肱也久安居玆寺時凡諸堂宇修補之功則雖少不美僧行禁戒之德則益多矣每年除夕居僧之輩分東西排酒盤打魅魁爭勝負常以雜事分夜之獎先師則痛禁其浮雜之行而唯以念佛徹夜馮其遺風餘德至今遠而勿失其無乃道說大覺二古聖重來歎

朝鮮寺刹史料

二八五

朝鮮寺刹史料
二八六
何其道德之餘風如彼其盛乎先師末年聚諸禪朋作默言會薄遊諸刹者蓋寺請不得已也歲在甲子結夏於金華山之證光偶而立病泊然而坐化奉其遺體置之嵩阿蓋遺遺戒也此洵亦有知因果爲公正得其名者出於枕肱之門庭護若子若休與致玄兩公也長於斯老於斯居常臨事憤不願身發死心出死力惟以成功爲務則此乃壯年之事也輟飲酒止費精淨室虛堂焚香端坐修白業誦經勸諸寮舍朝午供佛與晨昏香火不輟事則此乃休公老年之業也歲在黃虎自發願心鑿鑿箱之已財建十字之一閣圓通其名也臨之望之始若仙宮也越一年黃兒募檀財之若干造聖相之一軀觀音其號也奉之安之香火無已也至巳午未年間更鳩千萬人之塵財再造六十佛之雕影仍以奉安之仍以落成之更募檀緣重修大殿其癸未年也又明年春改綵腫其大殿訖其功焉又落成焉使其大殿更生光艷龍神歡喜况其人忻慶豔慕之情乎其大法堂五十殿圓通閣新建與重修之時其同種善根者且六十一軀塑像與

5

講像新造之際其共結良緣者蓋不知幾千萬人能令其善人等皆隨意往生於天堂佛刹受不朽無窮之樂何與人爲善者至於斯也可尙可尙其得非二國師三和尚一枕肱暗助而然歟抑亦應氣而然歟何其爲一寺樹鳴功如彼其全乎此亦護若老年之大功績也余亦以枕肱門人出入玆山積有年矣去甲戌冬抄自大光山重到于此蓋寺請也護若休公與我有故老退之餘以蓮經業於余余嘉其誠至不敢辭焉一日謂余曰寺之興復則雖可日觀也而所欠者其兵燹後失事蹟一事也余曾請於栢庵聰大師而成之其文雖美則美也遺闕其寺之始創首尾事炎如猗撫星辰造其曠曠也今師則其始重創二事蹟願未具述其槩以傳於將來其可乎余曰夫事蹟爲文廻衆人掛目之資如吾者於文替矣何敢易以爲之哉固辭焉休曰事蹟者記其實而已矣何必以其幻婦之辭浮譽於其間哉懇又懇辭無辭於是乎不揆荒淺記其大略使後之居斯者免其落漢之情云爾

朝鮮寺刹史料

二八七

朝鮮寺刹史料
二八八
康熙四十三年青猿暮春之下泮
曹溪老衲桂陰浩然 謹識
○全南順天郡曹溪山仙巖寺重修碑并序
葵彭胤 撰

聖上二十四年戊寅仙巖寺若休大師作圓通閣於寺之北明年造聖相一軀又三年造五十三佛檀像泊影又明年修大法堂以及五十殿併易其漫漶彫剝者既已事使來齋狀以乞辭惟吾東方多山 佛氏之居若碁置然最初曰皇龍寺其盛也以羅之慈藏道說二國師先後之也聞之古記說之西學於唐也曰遇大德焉所 神補之區凡三千有五百而湖南之三岩在焉曰朗州之龍岩曰啼陽之雲岩而其一爲昇平之仙岩蓋歸而相之岩在府治西四十里曹溪之山虎穴之陰側立十尋其上古仙人欄柯之跡云於是立大道場其東鐵佛一寶塔二浮屠三有石鍾高十餘尺大數圍光惟不常宋元佑中寺圯麗義天大師還自中國慨然復

7

8

1.10 조선총독부관보(朝鮮總督府官報)

本末寺法中改正認可, 寺有林伐採許可, 布教所設置屆, 布教所名稱變更屆, 寺有土地賣却許可 등은 제외하였다.

○제376호(明治) 1911-11-28

住持就職認可 十一月二十五日左記氏名ノ者ヲ各頭書ノ寺刹住持ニ就職ヲ認可セリ. 全羅南道 順天郡 仙巖寺 方洪波

1911년 11월 20일 전라남도 순천군 선암사 주지로 방홍파 스님을 인가를 함.

○제54호(大正) 1912-10-04

住持死亡 全羅南道順天郡曹溪山仙巖寺住持方洪波ハ八月十一日死亡セリ.

전라남도 순천군 조계산 선암사 주지 방홍파는 1912년 8월 11일 사망함.

○제264호(大正) 1913-06-18

住持就職認可 全羅南道順天郡曹溪山仙巖寺ニ於テ張基林ヲ住持候補者ニ定メ就職ノ件孰モ申請ニ依リ六月十六日之ヲ認可セリ.

전라남도 순천군 조계산 선암사의 주지후보자 장기림의 취임신청을 1913년 6월 16일 인가함.

○제1022호(昭和) 1930-06-02

住持就職認可 全羅南道順天郡雙巖面仙巖寺住持ニ李月泳就職ノ件五月二十九日認可セリ.

전라남도 순천군 쌍암면 선암사 주지로 이월영 스님의 취임을 1930년 5월 29일 인가함.

○제1483호(昭和) 1931-12-15

寺刹住持就職認可 全羅南道順天郡雙巖面仙巖寺住持ニ金東山就職ノ件十二月八日認可セリ.

전라남도 순천군 쌍암면 선암사 주지로 김동산 스님의 취임을 1931

년 12월 8일 인가함.

○제2380호(昭和) 1934-12-15

住持就職認可 全羅南道順天郡雙巖面仙巖寺住持ニ金東山再任就職ノ件
昭和九年十二月八日認可セリ.

전라남도 순천군 쌍암면 선암사 주지로 김동산 스님의 재취임을
1934년 12월 15일 인가함.

○제3010호(昭和) 1937-01-29

住持就職認可 全羅南道順天郡雙巖面仙巖寺住持ニ朴秉芸就職ノ件申請
ニ依リ昭和十二年一月二十五日認可セリ.

전라남도 순천군 쌍암면 선암사 주지로 박병운 스님의 취임신청 건
을 1937년 1월 25일 인가함.

○제3904호(昭和) 1940-01-29

住持就職認可 全羅南道順天郡雙巖面仙巖寺住持ニ朴秉芸就職ノ件申請
ニ依リ昭和十五年一月二十四日認可セリ.

전라남도 순천군 쌍암면 선암사 주지로 박병운 스님의 취임신청 건
을 1940년 1월 24일 인가함.

○제4874호(昭和) 1943-05-05

住持就職認可 全羅南道順天郡雙巖面仙巖寺住持ニ陽村映遂就職ノ件申
請ニ依リ昭和十八年四月三十日認可セリ.

전라남도 순천군 쌍암면 선암사 주지로 양촌영수 스님의 취임신청 건
을 1943년 4월 30일 인가함.

1.11 기 타(其 他)

1) 仙巖寺雜役矯革節目/暗行御史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辛卯五月 日邑上

仙巖寺雜役矯革節目

爲節目成給事仙巖寺即先王宸翰奉安之所而當今三宮殿祈福祝釐之寺也亦是國用紙地進上奉貢之處其所關重與他迥別況且營府雜役一并革罷事判下節目屢次截嚴而挽近人心不淑遐陬吏習逋慢不有莫重典飭海眎清淨法界遂使寒冷緇鉢看作飲啄貨泉鷗嚇備至虎喝不一噫彼蘭院蓮社幾致蒿萊邱墟聽聞及此誠極傷惋茲以秘飭合施矯揉所謂雜役一考閱則其爲痼疾不一其端或稱楔防而年增歲加或曰例給而科外濫懲或有給本價而貿用者而初不給價諸般事役因循滋蔓弊到極處亟圖厘正而其在永遵之義宜施更張之道故招待僧徒眼同吏鄉一一查正全減者全減半減者半減仍存者仍存另成節目兩件一件邑上一件寺上依此恪遵宜當向事此亦中節目外若以鄉廳及該房私通責納者切勿施行次

辛卯五月

暗行御史

後

官廳真末肆斗正月 柒斗四月 伍斗七月 肆斗十月 態舌壹斗春等 壹斗秋等 工庫法油貳升 細繩壹斤每朔 板材木 四人轎寨木 隨其所用依踏印傳令施行事 木物防錢拾兩 統一年 舖陳廳細繩二斤 法油貳升 大繩壹巨里 春秋等 炬籠柄木四十介 春秋等新延時并 真末壹斗 春秋等并 軍器紅繩壹百伍拾把 春秋等并 旗末木貳拾箇 大賓行次時 染竹口水 三年一次 若以代錢則貳兩庚年已納 癸年責納事 釋尊大祭時脯床木貳拾箇 春秋等並若以代錢則參兩磨鍊事 口水木價防錢貳兩 春秋等并 作廳 藍輦壹巨里所入中繩貳斤半 新延時東軒塗褙工價拾兩 禦帳木貳拾株 代錢則貳兩 朱杖木貳拾株 昇旗木壹株 坐旗木肆株 代錢則貳兩 鼓桶木貳株 代錢則壹兩 錮東木貳株 梯木貳株 刀每木貳株 搗衣木壹株 虹刀介木壹株 杵木貳件 一從踏印傳令施行事 各廳楔防作廳錢貳拾兩 刑房廳錢柒兩 通引廳錢貳拾捌兩 通廳庫子錢貳兩捌錢 將廳錢五兩 長房廳錢貳拾兩 官奴廳錢拾兩 軍牢廳錢拾兩 醫生錢貳兩貳錢 承發房朔米錢陸兩 春秋等并 內工房畫工米壹石 印出防錢貳兩捌錢參分 統一年 鎮營通房長尺代錢貳兩 將廳楔防錢拾兩 軍牢廳楔錢拾兩 及唱楔錢壹兩伍錢玖分 官廳庫子折白桶防錢參兩 禦邊色真末貳斗 法油貳升 一年一次 衫丁一件 塗褙工價柒兩 真末參斗 新延時 寺主人白米伍石 別動鈴不入 本面風憲式年例給錢參

兩 白紙壹束 麻鞋壹部 戶籍色 籍費錢參兩 厚紙一束 別有司条 戶籍式年 勿
論本他邑遊科錢勿施事 [題辭] 此是自本官斟 酌成節目定給 者也考據精格
存減停當可謂 勃諸金石永久 遵行今因緇徒 來訴茲以題給 俾爲完文事
辛卯五月二十九日 暗行御史 (押) (馬牌印 二九個處)

2) 仙巖寺蹟抄/[著者未詳]

[단국대학교 도서관 소장]

2. 시 문(詩 文)

2.1 시(詩)

1) 선암사(仙巖寺)

結構駭心目 飛甍疊相連 五十三金佛 莊嚴喻妙蓮 志心得歸依 人天大福田

後法堂有純廟冲年御筆人天大福田五字

說真鳩聽經

大覺法師在仙巖說法 鳩來聽經

降靈獅指天 焚香滿虛空 如在耆山前。

[雲養集 金允植]

선암사

집 지은 모양새에 마음도 눈도 놀라워라

나는 듯한 용마루가 첩첩히 이어졌네

천 세 개의 금불은

그 장엄함이 묘법연화를 깨우쳐주네

뜻 있는 마음이 귀의처를 얻으니

사람과 하늘의 부처님이라네.

후법당(後法堂)에 순조(純祖)께서 유년 시절에 쓰신 어필

“인천대복전(人天大福田)” 다섯 글자가 있다.

진리를 설법하니 비둘기 날아와 불경을 듣고

의천 법사(義天法師)가 선암사에서 설법할 때 비둘기들이

날아와 경 읽는 것을 경칭했다고 한다.

신령이 내려오니 사자가 하늘을 가리키네

사르는 향이 공중에 가득하여

마치 기도굴산(耆闍崛山) 앞에 와 있는 듯하네.

1) 기도굴산(耆闍崛山) : 인도(印度) 마갈타국(摩揭陀國) 동북쪽에 있으며, 부처님이 설법을 한 곳이다.

2) 제선암사함경대사진정(題仙巖寺涵鏡大師眞幀)

雙瞳炯炯。短髮星星。趺坐蒲團。寂寂惺惺。
明鏡有臺。莫狀丹青。空山無人。花開月明。
[雲養集 金允植]

3) 방선암사(訪仙巖寺)

何處南巖是。黃茅遠帶曛。峽農巖上熟。寺路樹根分。
天暖疑招雨。峯青喜截雲。不愁穿虎豹。梵唄漸相聞。
[梅泉集 黃玼]

선암사를 찾아가다

어느 곳이 선암사 남쪽 바위이던고
누런 띠풀이 멀리 황혼 빛을 띠었네
산골 농사는 바위 위에서 익어 가고
절 가는 길은 나무뿌리에서 나뉘네
날은 따뜻하니 아마 비가 올 듯한데
푸른 산봉은 구름 끊어 논 게 좋구려
호표의 소굴 뚫고 감도 걱정 없어라
범패 소리 점차 가까이 들려오거니

4) 선암사(仙巖寺)

暇日仙巖寺。江南太守來。大雄眞像古。極樂洞天開。
怪鳥穿林語。幽泉遇石厓。名花勤北向。攀折意悠哉。
[寒沙集 姜大遂]

2.2 산 문(散文)

1) 순천선암사대승암중수기(順天仙巖寺大乘菴重修記)

余束髮宦于朝。踰二十年。汔無一事建豎。自爲鮮民多居田野。歲暮風雪。閉

門向壁。愧念平生。忽焉不自知奚以爲人。惟性好爲文章。因以究夫聖賢之用心。旁及二氏。析其同異得失之故。時亦筆之爲書。聊以自娛。然當世之士。未有過而問焉。獨怪禪家者流。其所居多岷巖修阻。與人不涉之境。不知何從以聞余。往往偏擔重繭。求爲其所謂塔廟菴寮之文者。其踵相續。與好利者之趨走名譽。幾相似也。余又因以審其人之所以爲術。與夫所以見於行事者。類皆勤厲精辦。視艱如易。視鉅如細。一日發乎其心。不歲年而必有震動人之耳目。雖其所用無當乎倫理政教天下國家之故。而古史書中勞人志士忠忱功烈之跡。猶髣髴如可見於今世。世苟有能感慨思惟之君子。其必喟然太息。而不暇徒爲大言以詞詬已也。而余獨以區區之一技。甘爲其徒之役而不辭。世又鮮與可以同此太息者。方且以余爲夸於辭。而佞於其說也。順天仙巖寺僧景鵬。旣重建大乘菴之三年。與其弟子華永。北走七百里。求余爲之記。值余出不遇。旣又再遣永。而又不遇。又遣之乃見余。跽而請。繼以鵬之言曰。文不出則勿還。噫。若是而可以辭哉。盖始創菴者。曰呂訓。前後居菴。以傳習其道者。曰某曰某曰枕溟。授徒皆千數。枕溟之傳。曰函溟。曰雪渚。曰景鵬。渚先沒。函老矣。鵬諮畫於函。與其後進之秀者。擎雲主菴事。距創菴時一百八十年矣。其殿曰冥府。其室曰方丈。其房曰辦道者。皆圯不可居。鵬廣募積聚以舉其役。凡計用貨之數萬五千貫。用日之數。三百有奇。爲菴或修或改或創。計楹之數五十五。又以其仞。爲四方來學者薪炭鹽豉之費。計歲入之資若干。用以崇飾壯麗。鼓召歌動。殫能極效。滿願足志。以遺其來。長久無期。噫。若是而可以無記哉。[明美堂集 李建昌]

2) 유선암사기(遊仙巖寺記)

自八仙臺而西餘數十里。峽盡而地平。衍野忽曠。稍南而行又十餘里。峯巒環合。洞門幽邃。時見麋鹿群遊。珍禽異鳥。飛鳴嘒夏於樹林之間。余早發黃保。短童羸馬。緩緩而行。不知路之遠日之夕也。薄暮。到仙巖寺而憩焉。寺是羅代所創。棟宇欹斜。丹碧漫漶。僧言昔有客遊此山。見一物凸起於蘿蔓榛莽中。疑其爲異物。披而見之則乃寺也。因而剷去荒翳。疏除土石。修其漏污而不易其桷瓦。于今數百年矣。周覽庭宇。彷徨良久。時夜已深。山月漸明。

令沙彌前導而登所謂繼祖菴者。菴在絕頂。路緣蒼崖。崖面如削。苔滑難着足。蹣跚推挽而上。風泉亂落。飛瀑如雨。月下見之。如白虹玉龍。交撐倒插於青煙彩霧之間也。菴只數間。有僧懸燈孤坐。誦經禮佛。令人魂清骨冷。達曙不寐。平明。開戶望之。南海之微茫。浦淑之縈回。皆在几席之下。而迎鬢諸山。纍纍如丘垤。蓐食而下。宿雲未散。巖洞依微。還到仙巖。則日已高矣。仰見繼祖菴。如在九天之上。磬聲僧語。琅然半空。時山花半謝。林葉初嫩。萬壑千巖。紅綠交映。如別佳人不能去也。還出洞門。回首煙外。恍如瑤臺一夢之覺。衰病塵蹤。雖欲再遊而未易得也。恐斯遊之久而忘也。書此以識之。

[鵝溪遺稿 李山海]

유선암사기

팔선대에서 서쪽으로 수십 리 남짓 가면 산협(山峽)이 다하고 땅이 평평하다가 너른 들판이 홀연히 펼쳐진다. 여기서 조금 남쪽으로 다시 10여 리를 가면 산봉우리가 둘러싸고 동구가 그윽한데, 때로 노루와 사슴이 떼지어 노닐고 진귀한 새들이 숲 사이로 날며 지저귐다.

내가 아침 일찍 황보촌을 출발하여 작은 동자를 데리고 여윈 말을 탄 채 느릿느릿 가노라니, 길이 멀고 날이 저무는 줄도 몰랐다. 땅거미가 질 무렵에 선암사(仙巖寺)에 도착해 쉬었는데, 절은 신라 때 지은 것으로 건물이 기울고 단청이 몹시 퇴색되어 있었다.

중[僧]이 말하기를, “옛날에 어떤 길손이 이 산에 노닐다가 덩굴풀과 잡목이 우거진 가운데 불쑥 솟아 있는 것이 보이길래, 이물(異物)인가 의아해하며 풀과 나무를 헤치고 보니 바로 절이었답니다. 이에 거친 초목들을 베어내고 흙과 돌을 소제하고 비가 새어 더럽혀진 부분들을 말끔히 청소할 뿐 서까래와 기둥은 바꾸지 않았으니, 지금으로부터 수백 년 전의 일입니다.” 하였다.

절의 뜰과 건물을 둘러보며 한참 동안 서성대노라니 밤이 이미 깊어 산위에 달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다. 이에 사미승(沙彌僧)을 시켜 길을 인도하게 하고 이른바 계조암(繼祖菴)이란 곳으로 올라가니, 암자는 그야말로 산꼭대기에 있었다.

푸른 벼랑을 따라 길이 나 있었는데 벼랑은 깎아지른 듯하고 이끼가 미끄러워 발을 붙일 수 없었다. 비틀거리며 서로 밀고 당기면서 근근이 올라가니, 샘물이 바람에 불려 어지러이 떨어지고 나는 듯한 폭포가 마치 비가 내리는 듯하여, 달빛 아래 바라보매 마치 은무지개와 옥룡(玉龍)이 서로 버티면서 푸른 내와 채색 안개 사이에 거꾸로 꽃히는 것 같았다.

암자는 겨우 몇 칸뿐인데 중이 등불을 걸어놓고 외로이 앉아 경(經)을 외며 예불(禮佛)하고 있었다. 이 광경을 보니, 낮이 맑아지고 뺨끝이 서늘하여 새벽까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날이 밝을 무렵 일어나 지계문을 열고 바라보니, 아스라이 펼쳐진 바다와 휘감아 도는 개펄이 모두 궤안(几案)과 침석(枕席) 아래에 들어오고, 저 멀리 영일(迎日)과 장기(長鬢)의 산들이 불록불록 마치 개미집처럼 작게 보였다.

아침 일찍 조반을 먹고 다시 산을 내려오니 짙은 안개가 아직 흩어지지 않아 바위 골짜기가 희미하였고, 선암사에 도착하니 해가 벌써 높이 솟았다. 계조암을 우러러보니 마치 구천(九天) 위에 있는 것 같았는데, 경쇠 소리와 중의 음성이 반공에 낭랑히 울려 퍼지고 있었다.

때마침 산꽃은 반쯤 이울고 숲의 나무들은 막 움이 돋아 만학천암(萬壑千巖)에 붉은빛과 초록빛이 어우러져 있어, 마치佳人(佳人)을 이별이라도 하는 듯 차마 그냥 두고 떠날 수 없었다.

다시 동구문을 나와 고개 돌려 연하(煙霞) 저편을 보니, 흡사 요대(瑤臺)에서의 한바탕 꿈을 깬 것만 같았다. 이제 늙고 병들어 속진(俗塵) 속에 묻혀 사는 이 몸이 비록 다시 와서 노닐고 싶지만 쉽게 뜻을 이룰 수 없을 듯한데다가 이번의 유람이 오래 지나면 기억에 잊혀질까 염려하여, 이렇게 써서 기록해 둔다.

3) 답순천선암사금봉당병연서(荅順天仙巖寺錦峯堂秉演書)

雲衲一揮霞想依黯即接手滋如若對團蒲聽軟話兼有諸仙侶綺語爲我勤致此豈惟一時慰浣而止哉其將爲麗水傳誦之雅什所以愛玩不能釋手也仍知經力采篤於山外事曾不係戀尤爲艷尚顧此塵刹身心無時非粘泥絮不足枚煩於清淨界也秋來一

訪之云豈不欣聳而浮世一番合并終恐有魔強理弱之歎亦復奈何耶石茸之惠久困海腥之餘今可以提醒敗胃良可感也餘歸便立促萬不能一 [叢瑣錄 吳宏默]

2.3 금석문(金石文)

1) 승평부조계산선암사중수비(昇平府曹溪山仙巖寺重修碑)

順天 仙巖寺重修碑

曹溪山仙巖寺重修碑(篆題)

昇平府曹溪山仙巖寺重修碑銘并序

聖上二十四年戊寅仙巖寺若休大師作圓通閣於寺之北明年造聖相一軀又三年造五十三栴檀像洎影又明年修大法堂以及五十殿併易其漫漶彫剝者既已事使來齋狀以乞辭惟吾東方多山 佛氏之居若基 置然最初曰皇龍寺其盛也以羅之慈藏道說二國師之先後之也聞之古記說之西學於唐也曰遇大德焉所冷裨補之區凡三千有五百而湖南之三巖在焉曰朗州之龍巖曰晞陽之雲巖而其一爲昇平之仙巖蓋歸而相之巖在府治西四十里曹溪之山虎穴之陰側立十尋其上有古仙人爛柯之迹云於是立大道場其東鐵佛一寶塔二浮圖三有石鐘高十餘尺大數圍光恠不常宋元祐中寺圯麗義天大師還自中國慨然復之曰夫道說師以法眼觀三界其有以待之矣越三百六十五年當我宣廟丁酉火于兵石鐘傷唯鐵佛寶塔浮圖文殊殿曹溪門者巋然久之敬峯敬俊文正三大老復復之爲若殿若堂若樓閣方丈以環之峙大法堂其中皆按其故也獨古之所嘗殿而覆石鐘曰彌勒也者今其地爲大法堂至于休師大集厥功鳩緣捐橐首尾八年舉其所將墜而究其所未卒者使百有餘年之後輪奐如初蓋誠心護之代興而有光於前者也故衆稱曰護巖子嗚呼創之難守之不易若師其可謂能守耳矣寺有朋飲之風歲時尤盛頃年枕肱大禪師作默言會以新其俗師其徒之肖者也常宴處燒香日課貝多一葉持律猶三尺從而化者甚衆余嘗識方丈山性能大師能爲余道護巖子如此狀之者浩然大師系之辭曰

浮圖之來其遠矣 在普威安惟元祀 東入漢山西秦使 布流三韓此其始
孰爲左符鷄林記 入唐者藏說其嗣 曰香曰行曰如是 竝海以左山若水
在在鬪鬻角而持 所以分裂無時已 何以己之則如寺 小江南西曹溪峙

有巖刺天上如砥 是爲無量大福地 乃剝林巒列慳秘 其麗萬數朱丹被
包山絡礪戰戰只 無平不陂崇不圯 或劫於灰兵於燬 後有其人承前趾
統三中葉其師義 越我中興三開士 經之仍之印慧思 疏之闢之鏡靈址
耿耿業業艷而邃 霧蒼雲譎波濤詭 國師有真香火備 鐵佛吐光龍象喜
更百餘年休師至 躬先檀越及同志 曰五大師詒圖事 微我翼之而誰俟
執大願心弊年紀 舊殿仍修新閣起 範軀以成鏤像次 其黝其味爛其賁
不亟不遲功乃遂 載揚鈔鈴馳玄軌 嚮風讚歎無遠邇 上與五師齊厥美
下爲衆生諗厥自 余謂來者無廢墜 無騫無虧以無媿 百代知有護巖子

嘉善大夫行承政院都承旨兼經筵參贊官春秋館修撰官

藝文館直提學尚瑞院正 李震休 書

嘉善大夫司憲府大司憲 權 珪 篆

宣教郎守司諫院正言知製教 蔡彭胤 撰

崇禎紀元後八十年丁亥林鍾月日立

[裏面]

余暫掛目於碑首尾辭辭義相資能盡其妙雖謂其外孫之作亦可也但衆所慊然者蓋
寺舊而蹟新也其辭唯以一護岩重修之新功爲首而上二國師三和尚始重創之舊績
爲次而附於其間比昭穆次序其孫爲部首也令人觀視有何穩便哉茲寺乃羅麗二代
說覺二師始重創之古道場也年深歲久物老人非而況海寇八人之慘是遘乎三千寶
界一時灰田二古聖前後跡猶存者無幾矣幸山之僧岑俊正三和尚與同志十餘員接
其武 矢其復營梵宇安居僧其爲功至于今存之者百有餘年矣有護岩子休大士近
出於我先師枕肱大和尚門庭爲人素性公正不阿常以公務爲己任也或發心自力以
功成或指示同志而事遂茲寺之於護岩有大功能蓋乃知也寺蹟之宗其槩只此而衆
議者何其無乃乞辭人助言之所以歟惜乎玉上生蠅若余者於文瞽矣安敢是非於其
間哉辭無辭從衆議於是乎更著顛末以示可畏云爾自餘寺額人名開列于后法堂八
位 殿舍十二 衆寮十六山菴十三屬菴龍眼山善積菴雲動山道說菴山人典炯謹書
扶宗樹教曹溪嫡孫枕肱門人桂陰浩然誌幼學林澍 中古功人 大禪師坦元 大
禪師 暹 天 印行 坦海 性元 法贊 金玉 熙云 太性 祥雲 通政大夫
前住持坦戒 大禪師文信 栢菴堂性聰 大禪師敏機 大禪師秀演 曹順江 曹汝弘

全萬才 金淸吉 金完 徐秋景 崔一元 全時同 覺明 義岑 大禪師祖英 大禪
 師進敬 禪師任察 大禪師慧哲 行住持前僧將丹蓮 快照 三綱典性 隱遠 監役
 前任住持寂亂 佛庫都監前任住持規釋 紙庫都監前任住持雷洽 修善庫都監呂訓 前御
 思印 雙屹 致英 太祥 能坦 六潛 可遐 可超 得一 雷澤 時悟 居在緇徒二百
 五十餘名也 冶匠 朴秀全 通政大夫楚安 道堅 時演 智益 徐正碩 瑩休允常
 大化士前判事執浩 緣化秩 得白 崇云 抱己 供養主四仁 四欽

승평부 조계산 선암사 중수비명과 서문

숙종24(1698)년에 선암사(仙巖寺) 약휴(若休, 호암(護岩)대사²⁾)가 절의 북쪽에 원통각(圓通閣)을 만들고 이듬해에 성상(聖相) 1구를 만들었으며 또 3년에는 53불의 전단상(旃檀像)과 불화(53불탱)를 조성하였다.

다시 이듬해에는 대법당(大法堂)을 중수하고 아울러 오십전(五十殿)의 낡고 새는 기와를 바꾸었다. 일이 다 끝나자 문서를 가지고 와서 글을 청하였다. 우리 동방에는 산이 많은데 부처의 거주처가 바둑판처럼 많이 세워졌으니 그 맨 처음이 황룡사(皇龍寺)이다.

그 번성함은 신라의 자장(慈藏)과 도선(道詵) 두 국사(國師)가 선후하여 이룬 것이다. 고기를 보면 도선이 당나라에 공부하러 가서 대덕(大德)을 만나 비보(裨補)가 되는 곳을 모두 3천 5백 개소를 얻었다.

그중에 호남에 삼암(三巖)이 있으니 낭주(朗州)의 용암사(龍巖寺)와 회양(睢陽)의 운암사(雲巖寺)와 또 하나가 승평의 선암사이니 대개 가서 자리를 본 것이다.

선암사는 부의 관아(官衙)에서 서쪽으로 4리이니 조계산(曹溪山)의 호혈(虎穴)의 응달에 있는데 옆으로 세워 열 길이나 된다. 그 위에 옛날 선인의 도끼자루가 문드러진 자취가 있다고 한다.

여기에 큰 도량을 세워 그 동쪽에 철불(鐵佛) 한 구와 보탑(寶塔) 둘, 부도(浮圖) 셋이 있고 석종(石鐘)이 있어 높이 10여 척에 크기가 몇 아름이나 되었다. 빛은 괴이하여 항상되지 않아 송나라 원우(元祐) 때 [1086~1093년] 절이 퇴락해져 의천(義天)대사³⁾가 중국에서 돌아와 슬피

2) 호암(護岩)대사 : 1664~1738년. 소요 태능의 손제자, 침핑 현변의 제자.

하며 복구하고 말하기를, “도선국사께서 법안(法眼)으로 삼계(三界)를 관찰하시고 그 기다림이 있어서인가” 라고 하셨다.

그뒤 365년이 지나 우리 선조(宣祖) 선조30(1597)년 정유재란 때 불타고 석종은 손상을 입었으나 오직 철불과 보탑과 부도와 문수전과 조계문만은 홀로 지탱하였다.

오래지 않아 경잠(敬岑)과 경준(敬俊)과 문정(文正) 세 노장이 복구하고자 하여 전각이며 당우며 누각이며 방장으로 둘러 썼는데 대법당이 가운데 우뚝 선 것은 그 옛 모습을 고려한 것이다. 홀로 예전에 전이라 불러 얹어놓은 석종을 봉안한 것이 미륵전이었는데 지금 그 터에 대법당을 지었다.

약휴 대사에 이르러 그 공을 크게 모아 인연을 모아 전대를 털어 전후 8년 동안 무너지려 하는 것을 가지고 아직 마치지 않은 바를 추구하여 백 여 년 후에 처음처럼 화려하게 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은 대개 정성된 마음에서 보호하여 대대로 흥성하게 함으로써 이전보다 빛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모두 일컫기를 호암(護巖)대사라 하였다.

아! 처음 만들기는 어렵고 이를 지키기도 쉽지 않다. 대사와 같은 이는 능히 지킬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절에는 무리를 이루어 잔치하는 풍습이 있어 절기 때는 더욱 성행하였다.

근래에 침굉(枕肱)⁴⁾ 대선사(大禪師)가 묵언(默言) 모임을 만들어 풍습을 새롭게 하였다. 대사는 그 제자 중의 첫째 가는 분이다. 항상 연회하는 곳에 향을 사르고, 매일 꿰다라 경전 한 권을 외우고 계율을 삼척동자가 지키듯이 하여 따라 교화받는 이가 매우 많았다.

나는 일찍부터 방장산의 성능(性能)대사를 아는데 성능대사가 나를 위해 호암대사에게 말하여 이와 같이 되었다. 모양을 이룬 것은 호연(浩然)

3) 의천(義天) 대사 : 1054~1101년. 천태종을 창시하고 화엄종을 발전시킨 고려의 고승. 중국과 한국의 불교 전적을 모은 교장(敎藏)을 편찬하여 고려 불교의 높은 수준을 확립하였다.

4) 침굉(枕肱) 1616~1684년. 이름은 현변(懸辯). 서산대사의 손제자, 소요 태능의 제자, 호암 약휴의 스승이다.

대사인테, 이를 이어 말하기를,

부도가 온 것이 오래되니
진(晉)나라 함안(咸安) 연간이다.
생각건데 원 사당은 동으로 한산(漢山)에 들어오고
서진(西秦)이 삼한에 유포시켰으니 이것이 그 시작이다.
누가 다음 부신(符信)이 되어
계림의 기록을 가지고 당에 들어갔는가.
자장과 도선이 그 계승자이다.
향이라 하고 행한다 하고 이와 같다하니
바다의 왼편에 산과 물이로다
제멋대로 물어뜯고 뿔로 밀어내고
나뉘어 갈라지기 그칠 때가 없네
어찌하여 내가 곧 절과 같은가
소강남의 서쪽에 조계산이 있네
바위가 하늘 찌를 듯한데 위에는 반석같아
이것이 한량없는 크게 복된 땅이네
수풀을 베어내고 줄지어 감쳐 두어
화려한 만 개의 붉은 옷 입혔네
산을 두른 명주 골짜기 그만 그대로일뿐
평평하지도 비탈지지도 않고 돋우지도 않았네
혹은 재가 되고 병화에 불타서
뒤에 그 사람 있어 앞 터전을 이었네
삼국통일 중엽에 그 대사의 뜻으로
우리 중흥의 삼 대사가 나왔네
경영하고 이어 지혜로운 생각을 본받으니
턱우고 열어 거울같은 신령의 터가 되었네
크고 높아 검푸르고 심오하고
구름 안개 변하고 파도 어긋나네

국사께서 진정한 향화를 갖추시니
 철불이 빛을 토하고 용상이 기뻐하네
 다시 백년만에 약휴대사가 나타나
 몸소 단월과 동지보다도 먼저 나셨네
 5대 선사께서 남기심을 도모해
 작은 내 힘으로 돕지 누구를 기다릴까
 대원의 마음 잡고 해가는 줄 모르고
 옛 건물 고치고 새 건물 지었네
 틀에 부어 아름다운 불상을 이루어내
 새카맣고 어두운데 크게 무르익었네
 빠르지도 늦지도 않게 일이 이루어져
 기묘한 방을 실어 올리고 검은 바퀴를 달리네
 흠모하는 풍조와 찬탄하기 멀고 가까움이 없어
 위로는 5대사가 아름다움을 같이 하고
 아래로는 중생 위해 스스로 몸을 낮추어
 나는 오는 이에게 일러 그만 두지 않도록 했네
 그르침도 이지러짐도 없어 부끄럼 없이
 백대가 지나도록 호암대사가 있었음을 알리라.

가의대부 행승정원도승지 겸 경연참찬관 춘추관수찬관 예문관직제학

상서원정 이진휴가 쓰다.

가선대부 사헌부대사헌 권규(權珪) 전액을 쓰다.

선교랑 수사간원정언 지제교 채팽윤(蔡彭胤)이 짓다.

숙종33(1707)년 6월 일 세우다.

[뒷면]

내가 잠시 비에 눈을 돌리니 처음부터 끝까지 글과 글의 뜻이 서로 도
 와 그 기묘함을 다하였다. 비록 외부 후손이 지은 것이라 해도 또한 그럴
 만하다. 다만 대중들이 점점해 하는 것은 절은 오래되었는데 사적은 새로
 운 것이다. 그 글에는 오직 호암(護岩)대사 한분의 중수한 새로운 공을

으뜸으로 여기고 상대의 두 국사와 세 화상이 창건하고 중창한 옛 사적을
 그 다음으로 편찬하여 그 사이에 붙였으니 소목(昭穆, 신주를 모시는 차
 례. 중앙에 시조를 모시고 2세 4세의 짝수는 소라 하여 왼편에, 3세 5세
 의 홀수는 목이라 하여 오른편에 모심)의 차례에 비기자면 손자가 부수
 (部首)로 올라간 것과 다름없다. 사람들에게 보게 하면 어찌 편안하겠는
 가. 이 절은 신라와 고려대에 걸쳐 도선(道詵) 국사와 대각(大覺) 국사가 창
 건하고 중창한 옛 도량이다. 해가 깊어지고 세월이 오래되어 물건도 나이
 들었고 사람도 옛 사람이 아니다. 하물며 왜란과 팔인지난(八人之難)의
 참상을 만나 삼천 보계(寶界)가 일시에 잿더미가 되어 두 옛 성인의 전후
 한 자취가 남은 것이 거의 없다. 다행히 산승 경잠(敬岑)과 경준(敬俊)과
 문정(文正) 세 화상이 동지 10여 인과 무기를 접고 절을 복구하여 거주하
 는 승려를 편안하게 하니 그 공이 지금에까지 남아 있는 것이 백 여 년이
 된다. 호암(護岩) 약휴(若休, 1664~1738년) 대사가 근래에 우리 선사(先
 師)인 침굉(枕肱, 1616~1684년) 대화상의 문하에서 났는데 본래 사람됨
 이 공정하여 아부할 줄을 몰라 항상 공적인 일을 임무로 삼았다. 혹은 발
 심하여 혼자 힘으로 공을 이루고 혹은 동지에게 지시하여 일을 마쳤다.
 이 절이 호암대사에게 큰 공이 있음은 대개 알 수 있다. 사적의 줄거리는
 그 대강이 다만 이뿐이다. 대중의 논의는 무엇이 없다는 것인가. 이에 글
 을 부탁하고 말을 보태는 까닭인가. 슬프다. 옥 위에 파리가 앉았구나. 나
 같은 사람은 글에 장님이다. 어찌 그 사이에 감히 시비를 하겠는가. 글이
 든 글이 없든 대중의 논의를 따른다. 이에 그 전말을 다시 드러내 보이니
 두려울 뿐이다. 그 나머지 절의 편액과 사람 이름은 뒤에 열지어 보인다.
 법당이 8, 전사(殿舍)는 12, 대중 요사는 16, 산중 암자는 13, 속암은 용
 암산(龍眼山) 선적암(善積菴)과 운동산(雲動山) 도선암(道詵菴)이다.

산인(山人) 전형(典炯)이 삼가 쓰다.

부종수교(扶宗樹敎) 조계적손(曹溪嫡孫) 침굉문인(枕肱門人) 계음호연(桂
 陰澔然)이 적다.

유학(幼學) 임주(林澍) ㉠

[중고(中古)에 공을 들인 인명(人名)]

대선사(大禪師) 탄원(坦元), 대선사 응섭(應暹), 천조(天祖), 경천(敬天),
인행(印行), 탄해(坦海), 성원(性元), 법찬(法贊), 금옥(金玉), 희운(熙云),
태성(太性), 상운(祥雲)

[시주 명단]

통정대부(通政大夫) 전주지 탄계(坦戒), 대선사 문신(文信), 백암당(栢菴
堂) 성총(性聰, 1631~1700년. 부휴 선수의 증손제자로 송광사의 고승),
대선사 민기(敏機), 대선사 수연(秀演, 1651~1719년. 백암 성총의 제자로
송광사의 고승), 조순강(曹順江), 조여홍(曹汝弘), 전만재(全萬才), 김청길
(金淸吉), 김유완(金有完), 서추경(徐秋景), 최일원(崔一元), 전시동(全時
同), 각명(覺明), 의잠(義岑), 대선사 조영(祖英), 대선사 진경(進敬), 선사
임찰(任察), 대선사 혜철(慧哲), 행주지(行住持) 전승장(前僧將) 단련(丹
蓮)

삼강(三綱) 쾌조(快照), 전성(典性), 은원(隱遠)

감역(監役) 전주지 적란(寂亂)

불고도감(佛庫都監) 전주지 규석(規釋)

지고도감(紙庫都監) 전주지 뇌흙(雷洽)

수선고도감(修善庫都監) 여훈(呂訓) 전함(前御) 사인(思印), 쌍흘(雙屹),
치영(致英), 태상(太祥), 능탄(能坦), 육잠(六潛), 가하(可遐), 가초(可超),
득일(得一), 뇌택(雷澤), 시오(時悟)

상주 승려 250여명

야장(冶匠) 박수전(朴秀全)

통정대부 초안(楚安), 도견(道堅)

각수[刻員] 시연(時演), 지익(智益), 서정석(徐正碩), 영휴(瑩休), 윤상(允
常)

연화(緣化) 명단

득자(得白), 승운(崇云), 포기(抱己)

공양주(供養主) 사인(四仁), 사흙(四欵)

대화사(大化寺) 전판사(前判事) 김호(執浩)

2) 선암사대각암순치명동종(仙岩寺大覺庵順治銘銅鐘)

全南道寶城郡地天鳳山大原寺浮屠庵中鐘三百斤入

施主秩

鑄鍾大施主朴世云 鑄鍾大施主趙任仁 龍頭施主金銀相 供養施主金起金 供養
施主宣玠 布施施主情清比丘 布施施主李禮南 鐵物施主朴山立 鐵物施主金憲
旺 黃蜜施主裴乙南 供養施主金得光 供養施主鄭立 末醬施主李哲生 食鹽施
主韓仅日

本庵秩

大禪師惠觀比丘 大禪師應旭比丘 大德師叙還比丘 印巴比丘 通證比丘
印全比丘 處明比丘 元印比丘

鑄鍾畫員秩

通政大夫金龍岩 張士詳

緣化秩

供養主敬淑比丘 別座贊楫比_尼 大功德化主元生 道峯 和尚 道元 三剛琢海
持殿太玉 書記 道熙

順治十四年丁酉 五月日鑄鍾

王妃殿下壽齊年 主上殿下壽萬歲

남 보성군 천봉산 대원사 부도암(浮屠庵)에 있는 종. 300근을 넣다.

[시주 명단]

주종대시주(鑄鍾大施主) 박세운(朴世云), 주종대시주(鑄鍾大施主) 조임
인(趙任仁), 용두시주(龍頭施主) 김은상(金銀相), 공양시주(供養施主) 김기
금(金起金), 공양시주(供養施主) _니진(宣玠), 보시시주(布施施主) 정청비구
(情淸比丘), 보시시주(布施施主) 이에남(李禮南), 철물시주(鐵物施主) 박산
립(朴山立), 철물시주(鐵物施主) 김헌왕(金憲旺), 황밀시주(黃蜜施主) 배
을남(裴乙南), 공양시주(供養施主) 김득광(金得光), 공양시주(供養施主) 정
립(鄭立), 말장시주(末醬施主) 이철생(李哲生), 식염시주(食鹽施主) 한근일

(韓僉日)

본암(本庵) 명단

대선사(大禪師) 혜관비구(惠觀比丘), 대선사(大禪師) 응욱비구(應旭比丘), 대덕사(大德師) 서환비구(叙還比丘), 양사비구(印巳比丘), 통증비구(通證比丘), 양전비구(印全比丘), 처명비구(處明比丘), 원앙비구(元印比丘)
주종화원(鑄鍾畫員) 명단

통정대부(通政大夫) 김용암(金龍岩), 장사양(張士詳)

연화(緣化) 명단

공양주(供養主) 경숙비구(敬淑比丘), 별좌(別座) 찬즙비구(檀楫比丘), 대공덕화주(大功德化主) 항생(亢生), 도잠(道岑), 화상(和尚) 도원(道元), 삼강(三剛) 탁해(琢海), 지전(持殿) 태옥(太玉), 서기(書記) 도희(道熙)

효종8(1657)년 5월 일 종을 주조하다.

왕비전하께서도 만수무강하시기를

주상전하께서 만수무강하시기를

세자저하께서 천세만세 강녕하시기를

3) 선암사범종각강희명동종(仙岩寺梵鐘閣康熙銘銅鐘)

康熙三十九年庚辰四月日 全羅道順天府曹礪山仙岩寺大鐘 殷鑄重八百斤
夫秩

金命云 高岩廻 李億善 金尙立子金守元 金成元都片手 副片手金孝建 成元
第金暹奉

施主秩

大鍾施主許忠立兩位 大施主河宗海 施主歲重子尙片 施主池漢觀 施主柳勝
命 施主柳二龍 施主柳忠立 徐俊發 徐哲生 全一會 朴順日 朴順龍 徐時男
尹分一 宋善伊 任鎭商 趙有辟 李於今者 朴泰柱 洪永立 林榮起 姜大朴 朴
應立 龍 梁業男 鄭世元 字行徐氏詳禮 良六禮廉 河順江 金億萬 崔致
云 柳岩翌 鄭哲云 朴末叱尙 黃自麟 鄭天乙 鄭日奉 柳千金 金占柱 朴立
守召吏 鄭時 河萬 鄭世昌 尹就玉 律伊律 應閑比丘 韓淡沙伊 徐

男 韓廷☒ 金厚石 李時建

前太銘施主秩

彦奇貞光 隱☒學心 法玄彦☒ 卓道學兌 鍾玉信唯 若勒處詳 以寬哲俊 冲軒惟色 慈允 許仁眞 韓禮伊 張祐建 徐莫男 金得悅 徐萬連 黃德秋 金貴一 徐亂奉 若勒靈☒ 金仅尙 宋氏單身 金命生 柳宗確 李反生 吳廷夏 金返月 女☒玉尙 丁時允 吳祐成 張渙世 姜日无 宗善 慈侃 坦戒

本寺秩

大禪師浩然 大禪師文言 禪師楚同 禪師惠哲 禪師進敬 禪師震雲 思印何日 六岑克俊 丹蓮双屹 住持卓夫 持殿可訓 三綱執忍 雷益 唯特 僧統會元 記室規釋 彦寬 若休 若訥比丘 六證 碩海比丘 致玲 清悟比丘 老德前判銜能坦 妙岩比丘 太敏 時淨雷淨 時悟 雷洽 義岑

緣化秩

大功德主得哲 別座靈贊 都監突亂 供養主護聰 負木☒☒森 李英發 來往僧若護 刻手書千玄

主上殿下壽萬義邸口下 王妃殿下壽齊年壽千秋

숙종26(1700)년 4월 일 전라도 순천부 조계산 선암사 대종. 800근을 주조하였다.

☒부(☒夫) 명단

김명운(金命云), 고암회(高岩廻), 이억선(李億善), 김상립(金尙立)의 아들 김수원(金守元), 김성원(金成元), 도편수(都片手), 부편수(副片手) 김효건(金孝建), 성원(成元)의 동생 김섬봉(金暹奉)

시주(施主) 명단

대종시주(大鍾施主) 허충립(許忠立) 양위(兩位), 대시주(大施主) 하종해(河宗海), 시주(施主) 세중자(歲重子) 상편(尙片), 시주 지한☒(池漢☒), 시주 유승명(柳勝命), 시주 유이룡(柳二龍), 시주 유충립(柳忠立), 서준발(徐俊發), 서철생(徐哲生), 전일회(全一會), 박순일(朴順日), 박순룡(朴順龍), 서시남(徐時男), 윤분일(尹分一), 송선이(宋善伊), 임진상(任鎭商), 조유벽(趙有辟), 이어금자(李於今者), 박태주(朴泰柱), 홍영립(洪永立), 임찬

기(林榮起), 강대박(姜大朴), 박응립(朴應立), ☐룡(☐龍), 양업남(梁業男),
 ☐☐(☐☐) 정세원(鄭世元), 자항(子行) 서씨상례(徐氏詳禮), 양륙 예렴(良
 六禮廉), 하순강(河順江), 김억만(金億萬), 최치운(崔致云), 유암익(柳岩
 翌), 유철운(鄭哲云), 박말질상(朴末叱尙), 황자☐(黃自☐), 정천을(鄭天
 乙), 정일봉(鄭日奉), 유천금(柳千金), 김정주(金占柱), 박☐립(朴☐立), 수
 소리(守召吏) 정시☐(鄭時☐), 하☐만(河☐萬), 정세창(鄭世昌), 윤취옥(尹
 就玉), ☐☐율이율(☐☐律伊律), 응한비구(應閑比丘), 한담사이(韓淡沙伊),
 서☐남(徐☐男), 한정☐(韓廷☐), 김후석(金厚石), 이시건(李時建)

전태명시주(前太銘施主) 명단

언기 정광(彦奇貞光), 은☐ 학심(隱☐學心), 법현 언☐(法玄彦☐), 탁도
 학태(卓道學兌), 종옥 신유(鍾玉信唯), 야륙 처상(若勒處詳), 이관 철준(以
 寬哲俊), 충헌 유색(冲軒惟色), 자운(慈允), 허인진(許仁眞), 한예이(韓禮
 伊), 장우건(張祐建), 서막남(徐莫男), 김득열(金得悅), 서만연(徐萬連), 황
 덕추(黃德秋), 김귀일(金貴一), 서난봉(徐亂奉), 야륙 영☐(若勒靈☐), 김
 근상(金僅尙), 송씨단신(宋氏單身), 김명생(金命生), 유종대(柳宗碓), 이반
 생(李反生), 오정하(吳廷夏), 김반월(金返月), 여☐옥상(女☐玉尙), 정시윤
 (丁時允), 오우성(吳祐成), 장환세(張渙世), 강일무(姜日无), 종선(宗善),
 자간(慈侃), 탄계(坦戒)

본사(本寺) 명단

대선사(大禪師) 호연(浩然), 대선사(大禪師) 문언(文言), 선사(禪師) 초동
 (楚同), 선사(禪師) 혜철(惠哲), 선사(禪師) 진경(進敬), 선사 진운(震雲),
 사인 하일(思印何日), 육잠 극준(六岑克俊), 단련 쌍흠(丹蓮雙屹), 주지(住
 持) 탁부(卓夫), 지전(持殿) 가훈(可訓), 삼강(三綱) 집인(執忍), 뇌익(雷
 益), 유특(唯特), 승통(僧統) 회원(會元), 기실(記室) 규석(規釋), 언관(彦
 寬), 약휴(若休), 약눌비구(若訥比丘) 육증(六證), 석해비구(碩海比丘) 치
 령(致玲), 청오비구(淸悟比丘) 노덕(老德), 전판함(前判銜) 능탄(能坦), 묘
 암비구(妙岩比丘) 태민(太敏), 시정(時淨), 뇌정(雷淨), 시오(時悟), 뇌흡
 (雷洽), 의잠(義岑)

연화(緣化) 명단

대공덕주(大功德主) 득철(得哲), 별좌(別座) 영찬(靈贊), 도감(都監)
돌난(突亂), 공양주(供養主) 호충(護聰), 부목(負木) ㉔㉔삼(㉔㉔森),
이영발(李英發), 내왕승(來往僧) 약호(若護), 각수서(刻手書) 천현(千玄)
주상전하수만세(主上殿下壽萬歲)
왕비전하수천추(王妃殿下壽齊年)
세자저하수제년(世子邸下壽千秋)

4) 선암사승선교비(仙岩寺昇仙橋碑)

仙岩寺溪流洞昇仙橋碑銘

橋之長短功之巨細觀者詳之何所贅言但記初創興壬辰水蛇瑕役㉔㉔後之年月云
爾銘曰

山之水萬古長流 橋之功萬古長休

師之名初創始於赤猪之季冬重修補於黑蛇之仲春前大化士護岩堂若休別座會元
片首太素監役可㉔㉔㉔㉔綱典戒親大任亘書記寔全住侍丹蓮㉔化主典一住持規
釋㉔㉔㉔峯花㉔海監察書記習遠片首朴論立冶朴守全典炯 謹書

康熙五十二年季春日立 監役七卓 ㉔㉔㉔㉔

선암사 계류동의 승선교 비명

다리의 길고 짧음, 공(功)의 크고 작음은 보면 자세히 알게 될 것이니,
어찌 굳더더기 말을 하겠는가. 다만 처음 만든 숙종38(1712)년 이후 ㉔㉔
의 연월을 기록할 뿐이다. 비명에 이르기를,

산의 물은 만세토록 길이길이 흐르고,

다리의 공은 영원히 길이길이 아름답네.

스님의 이름은 [결락] 처음 숙종33(1707)년 12월에 시작하였고, 숙종
39(1713)년의 2월에 중수하였다.

전대화사(前大化士) 호암당 약휴(護岩堂 若休), 별좌(別座) 회원(會元), 편
수(片首) 태소(太素), 감역(監役) 가㉔㉔㉔(可㉔㉔㉔), ㉔강(㉔綱) 전개(典
戒), 친대(親大) 임궁(任亘), 서기(書記) 요전(寔全), 주지(住侍) 단연(丹

蓮), 화주(化主) 전일(典一), 주지(住持) 규석(規釋), 영화(峯花)해(海), 감찰 서기(監察書記) 습항(習遠), 편수(片首) 박론(朴論), 입치(立治) 박수전(朴守全). 전형(典炯)이 삼가 쓰다

숙종39(1713)년 3월 일 세우다.

감역(監役) 칠탁(七卓)

5) 순천선암사상월당새봉대사비문(順天仙巖寺霜月堂聖筭大師碑文)

霜月大師碑銘[篆書]

有明朝鮮國禪教都摠攝國一都大禪師霜月大師碑銘并序

大匡輔國崇祿大夫 原任議政府左議政 兼領經筵監春秋館事 李滉 撰

嘉善大夫 兵曹參判 兼 同知經筵事 蔡弘履 併 書篆

余養疾于東岡丙舍鄰菴有智異山人春坡義珀大師者 時時來疑 其師惠庵玠藏法祖師霜月 豎碑經營矣 一日 袖應雲燈寤所撰 霜月堂行蹟 謁銘甚懇 余於浮屠之學 無聞焉只爲遺閑 試閱其卷 師諱聖筭 字混遠 霜月其號也 俗姓孫氏 順天人 母金氏 夢明珠而娠 以丁卯正月 十八日生 幼時嬉戲 聚沙石 爲窰堵波 十一歲投曹溪山之仙巖寺極俊長老 十五薙鬚 又明年 受具於洗塵堂文信大師 十八參雪巖 道旣通 遍叅于碧虛 南岳 蓮華 癸巳歸觀本鄉 四方須笈者 日益衆 無用一見 歎曰 涉安後一人也 師曰而中身圓面大耳 聲若洪鍾 坐如泥塑 受衣鉢於雪巖 盖臨濟嫡傳也 凡國內名山 瓶錫殆遍 子夜必拜北斗 常以講明眞解 心踐智證 爲法門 嘗曰 學者如無返觀工夫 雖日誦千言 無益於己刹又曰 一日念頭 不着實功 便對食愧飯 戊辰自春 曹署禪教兩宗都摠攝國一都大禪師庚午住表忠院長 丁亥十月 有微疾 口授一偈曰 水流元去海 月落不離天 怡然順世 世壽八十一 法臘七十 紫雲翳空 七日乃滅 羣弟子 加其號曰 平眞大宗師 及茶毘 奉寒瓊至妙香 而三珠迸出 遂藏其一於石鍾 又分安于順天之仙巖 海南之大菴云 嗚呼 師誠學禪而有其實者也 對食愧飯等語 有足以警醒衰俗 於是乎 不以老朽辭 而輒爲之銘曰

繫師修道 亦自喫繫 單心力踐 高步玄壺 嗟今之人 觚而不觚

徒占儒名 夷考則殊 若比於師 寧不愧慙 我感于斯 題之貞石

崇禎紀元後 三壬寅 (1782) 六月 日 立

【陰記】

立碑而功實著 造塔而靈異顯 噫 吾師示寂之後 關以西 湖之南 三顆舍利之塔 可閱劫不磨 童樵豎牧 亦皆指點 以爲霜月堂寶珠之藏 則雖無碑亦可也 而寂後靈異之迹 果由於功實之積 則碑亦不可無也 竊雖不敢擬於衣鉢之托 而括塵障風幡之喻 受恩最深千里裏足 再入京師 他山之石 浮海而運 碑板之文 聞名而得 丙丁以後 不可以其文 涵吾師碑額 與惠庵藏公 發慮共謀 石不改而文不得不改 肆乃復立埋置之碑 此寺 吾師受具之所 大茆 吾師繼祖之地 此寺之碑 惠庵 出力主之 大茆之碑 寤也竭心了功 後之人摩挲於此 可知吾師功實之遺跡云爾

門人 前行禪教宗正 應雲燈寤 謹述書

門人	杜五	慥冠	淡定	覺樹	一儁	智銀	在眼	覺禪	圓旻	卓濬
	景華	正眼	竺桂	采文	泰肅	淑懲	費隱	定樹	燈寤	允暹
	顯雋	晋刹	法槌	卽象	瑞敏	最華	鵬慧	綻春	雨澄	令足
	就如	本有	禪參	獨存	敬感	法孫	性天	慕根	慧衍	朋運
	旻徽	坦淨	定心	智榮	杜伯	卓戒	守初	朗成	卓隣	性宇
	體宇	玗藏	進閑	滿旻	卓訓	心悅	誠太	善莫	克岸	法心
	寬性	大領	選奎	佑瓊	正密	敏華	永俊	致定	觀一	利跣
	壯洪	素璠	裕兌	摯舒	竺洪	有正	泰隱	謚綻	念倫	耐言
	海禪	講瓘	昶學	講益	再閑	會孫	敬寅	德洪	妥朋	性一
	就禪	得聰	獨贊	玉璘	巨鑑	攝閑	有定	載瑜	坦敏	能贊
	廣惠	慧旗	尚禪	呂寬	大仁	普允	桂花	冲徽	義箴	會器
	洪禹	禧成	體安	慎默	義瑤	就雨	景許	慎弟	旻華	識活
	兌修	此輝	平綻	永聰	義璠	性修	志脩	義融	受瓊	序鴻
	晴岸	軌學	幸祐	守慧	體活	永恂	志演	德澗	德敏	裕喆
	濟活	惟彥	就安	稱一	永勳	玄孫	處一	再修	采元	智澗
	掬賢	大淳	太罕	采永	夢悅	能辯	胤明	近一	正愚	色允

世應 一綯 講洪 圓俊 受戒 丕賢 覺銀 日天 一演 一安
感閑 感彥 感惠 感活 月彥 月慧 月心 乃銀 乃淳 綻洪
松廣隱學 大芑出學 雙峯好學

施主 牧官 趙衡重，前行禪教宗正 西岳等鵬，嘉善 金一善，北漢總攝
嘉善 演訓， 通政 極初，前行八道都僧 嘉善 六萬，嘉善 會淳，
嘉善 鵬煥，嘉善 志淳，前行道內公員 嘉善 會俊 嘉善 保川
嘉善 軌澄 嘉善 見宇 巨庵泰旗 嘉善 漢日 嘉善 月淨
嘉善 采澄 嘉善 忠密 嘉善 勛淨 嘉善 平奎 崇政大夫 崔益重
城巖印慧 樂運等守 嘉善 義修 興國寺 松廣寺 大興寺 泰安寺
甘露寺 波根寺 善國寺 實相寺 華嚴寺 松川寺 玉龍寺 萬興寺
香林寺 桐華寺 雙峯寺 寶林寺 道岬寺 雙溪寺 開興寺 天冠寺
大芑寺 美黃寺 佛岬寺 雲興寺 佛會寺 開天寺 定水寺 萬德寺
石泉寺 萬淵寺 瑞鳳寺 龍泉寺 龍興寺 楞伽寺 金塔寺 觀音寺
赤裳寺 圓通寺 嶺南表忠祠 東河雙溪寺 多率寺 百泉寺 玉泉寺
清谷寺 雲興寺 花芳寺 龍門寺 嚴川寺 文殊寺 君子寺 智谷寺
長水寺 龍溪寺 金龍寺 大乘寺 城杆乾鳳寺 陽襄神興寺 大圓無畏
靈鷲山人 渾榮 邑居通政 成善宗 嘉善 振玉 山中宗師 宇幸
慎活 止印 竟陟

時住持 通政 來言 佛庫 都監通政 出仁 維那 嘉善 鵬珣 察衆 通政
近慧 前銜 志坦 前碑時都監 淑俊 幻慧 直明 燭玲 震雲 來哲
竺性 漢日 暉俊 暉善 益聰 持殿 感活 敬性 萬勸 存湜 素希
書記 素珙

運石時所任 錦濶 翠閒 勉活 籠臺加簷僧 眷起誓

六百大衆共爲役夫

三綱 伸策 見聰 勝禪 緣化 都監 嘉善 會俊 別座 本宥 供饋
稱玉 來往 敘進

京來刻員 李世得 金德利 李春芳

石工 李命得 平山石

순천 선암사 상월당 새봉대사 비문

상월대사비명

조선국선교도총섭국일도대선사상월대사비명병서

대광보국승록대부 원임의정부좌의정 겸 영경연

감춘추관사 이은(李澗)이 글을 짓다.

가선대부 병조참판 동지경연사 채홍리(蔡弘履)가 글씨 쓰고 전액하다.

내가 동쪽 산등성이의 재사(齋舍)에서 요양하고 있을 때 인근 암자에 지리산 사람 춘파의일(春坡義珀)대사가 있었는데 때때로 와서 그 스승인 혜암운장(惠庵玠藏)의 법조인 상월(霜月)대사의 비석을 세우는 =====.

하루는 응운등오(應雲燈寤)가 지은 상월당의 행적을 소매속에 가지고 와서 매우 간절하게 명(銘)을 청하였다. 나는 불교의 학문에 대해 아는 바가 없어 다만 한가한 시간이나 보내려고 한번 훑어 보았다.

대사의 휘(諱)는 새봉(璽筭), 자는 혼원(混遠)이며 상월은 그 호이니 속성(俗姓)은 손(孫)씨이며 순천인(順天人)이다. 어머니 김씨가 꿈에 밝은 구슬을 받고 임신하여 정묘년(1687) 정월18일에 출생하였다.

어려서도 모래와 돌을 모아 솔도파(牽堵波 : 사리의 봉안이나 절의 장엄을 표시하는 목적으로 쌓은 탑)를 만들며 놀더니 11세에 조계산(曹溪山) 선암사(仙巖寺)의 극준장로(極俊長老)에게 출가하였다.

15세에 머리를 깎아 스님이 되고 이듬해에 다시 세진당(洗塵堂) 화악문신(華岳文信)스님에게 구족계(具足戒 : 스님이 지켜야 할 계율을 맹서하는 것)를 받고 18세에 설암추봉(雪巖秋鵬)에게 와서 학문의 길에 들어갔다.

도를 이미 통하고는 벽허(碧虛), 남악(南岳), 연화(蓮華)등을 두루 찾아 뵈고 계사년(1713)에 고향에 돌아와 아버이를 뵈었다. 책 보따리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고 무용수연(無用秀演)스님은 한번 보고서 탄식하기를 “지안(志安)스님 이후의 제일인자다.” 라고 말하였다.

대사는 중간 정도의 키에 둥근 얼굴에 큰 귀였으며 목소리는 종소리처럼 우렁차고 앉으면 마치 흙으로 만든 조각처럼 움직임이 없었다. 설암스

님에게서 의발(衣鉢)을 전수받았으니 이는 임제종(臨濟宗)의 적통(嫡統)을 이은 것이다. 무릇 밥그릇과 지팡이를 가지고 국내의 명산을 거의 다녔으며 한 밤중 자시(子時)에는 반드시 북두칠성에 절을 올렸다.

언제나 진정한 이치를 강론하여 밝히며 마음으로 실천하고 지혜로 증명하는 것을 가르침의 문으로 삼았다. 항상 “배우는 사람이 만일 자신을 돌아보는 공부가 없다면 비록 매일 수천마디의 글을 외워도 본인과 절에 이로운 것이 없다.” 라고 말하였고 또, “하루라도 생각하는 것이 착실한 공부가 없다면 곧 식사를 할 때 밥이 부끄럽다.” 라고 하였다.

무진년(1748)에 예조(禮曹)로부터 선교양종도총섭국일도대선사(禪敎兩宗都摠攝國一都大禪師)에 임명되었고 경오년(1750)에는 표충원장(表忠院長)으로 머물렀다.

정해년(1767) 10월에 가벼운 질환이 있더니 입으로 계송(偈頌)을 전해 주기를 “물은 흘러 바다로 들어 가고 달은 저도 하늘을 떠나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는 편안히 세상을 떠나니 세수(世壽)가 81세요, 법랍(法臘)은 70세였다. 보라색 구름이 하늘을 뒤덮더니 7일 만에 없어졌다. 여러 제자들이 호를 더하여 평진대종사(平眞大宗師)라고 하였다.

다비(茶毘)를 하고는 찬 구슬을 받들어 묘향산에 이르자 3개의 사리가 함께 나와 마침내 그중 하나는 석종(石鐘)에 갈무리하고 또 순천의 선암사(仙巖寺)와 해남의 대둔사(大菴寺)에 나누어 안치했다고 한다.

아! 대사는 진정 선(禪)을 배워서 그 실천함이 있는 분이였다. 식사를 할 때 밥이 부끄럽다는 등의 말은 죽히 쇠퇴한 풍속을 경계하고 깨우칠 수 있다. 이에 늙고 병들었다고 사양하지 못하고 곧 명(銘)을 하노라.

아! 대사가 도를 닦음은 또한 매우 긴요한 곳에서 시작하여

한 마음으로 힘써 실천하여 높은 경지, 오묘한 영역에 도달했네.

슬프다, 요즈음 사람들은 모가 나야 할 그릇이 모가 나지 않은 것 같아서 쓸데없이 유학자라는 이름만 차지하고 있으며 그 행실을 돌아보면 다르구나.

만일 대사에게 비교한다면 어찌 부끄럽지 않겠는가?

내가 이에 감동하여 그 비석에 글을 쓰노라.

승정(崇禎) 기원후 세 번째 임인년(1782) 6월 일에 세우다.

비석을 세워서 공적과 실상이 드러나고 탑을 조성하여 신령스럽고 기이한 것이 나타나는 것이다. 아! 우리 스승이 입적한 후에 관서(關西)와 호남(湖南)에 사리를 모신 세곳의 탑이 몇 겹을 지나도 마멸되지 않을 것이고 풀베는 아이나 소를 모는 목동들도 또한 모두 가리키며 상월당대사의 사리가 있는 곳이라 할 것이니 비로 비석이 없어도 또한 괜찮을 것이지만 입적한 후의 신령스러운 일이 과연 공적과 실상이 쌓인 것에서 연유한 것인즉 비석이 또한 없어서는 안될 것이다. 오(寤)가 비록 의발(衣鉢)을 전수받는 것에는 감히 나설 수 없으되 === 은혜를 받은 것이 가장 깊어 천리를 달려 두 번이나 서울에 들어가 다른 산의 돌을 바닷길로 실어오고 비석의 글을 명망있는 사람에게 얻고자 하였으나 병정(丙丁 :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이후 글을 얻어 우리 스승의 비액을 할 수 없었다. 혜암(惠庵)과 함께 걱정하고 계획하여 비석은 바꾸지 않되 글은 고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에 물어버린 비석을 다시 세웠다. 이 절은 우리 스승이 구족계를 박은 곳이요, 대둔사는 우리 스승이 조사의 법을 이은 곳이다. 이 절의 비석은 혜암이 힘을 내어 주관하였고 대둔사의 비석은 내가 마음을 다해 공사를 마쳤으니 후세사람들이 이 곳에서 비석을 어루만지며 우리 스승의 공적과 실상이 깃든 유적을 알수 있을 것이다.

문인(門人) 전 행 선교종정(禪敎宗正) 응운등오(應雲燈寤)는 삼가 기술하고 쓴다.

문인	두오	조관	담정	각수	일준	지은	재안	각선	원민	탁준
	경화	정안	축계	채문	태숙	숙징	비은	정수	등오	윤섬
	현준	진찰	법련	즉상	서민	최화	봉혜	탄춘	우징	영족
	취여	분유	선참	독존	경감	법손	성천	모근	혜연	봉운
	민휘	탄정	정심	지영	두백	탁계	수초	낭성	탁린	성우
	체우	윤장	진한	만경	탁훈	심열	성태	선명	극안	법심
	관성	대령	선규	우경	정밀	민화	영준	치정	관일	리□

장홍 소□ 유태 지서 축홍 유정 태은 밀탄 염륜 내언
 해선 강관 창학 강익 재한 증손 경인 덕홍 타봉 성일
 취선 득총 독찬 옥린 거감 섭한 유정 재유 탄민 능찬
 광혜 혜기 상선 여관 대인 보운 계화 충휘 의잠 회기
 홍우 희성 체안 신묵 의정 취우 경허 신제 민화 식활
 태수 차휘 평탄 영총 의□ 성수 이준 성유 결오 척봉
 자경 지수 의용 수정 서홍 청안 쾌학 행우 수혜 체활
 영순 지연 덕활 덕민 유철 제활 유언 취안 칭일 영훈
 현손 처일 재수 채원 지형 국현 대순 태한 채영 몽열
 능변 윤명 근일 정우 색윤 세응 일현 강홍 원준 수계
 비현 각은 일천 일연 일안 감한 감언 감혜 감활 월언
 월혜 월심 내은 내순 탄홍 송광 은학 대둔 출학 쌍봉
 호학

시주 목관 조형중 전행선교종정 서악등봉, 가선 김일선, 북한총섭
 가선 연훈, 통정 극초, 전행팔도도승 가선 육만, 가선 회순
 가선 봉환, 가선 지순, 전행도내공원 가선 회준, 가선 보천
 가선 쾌징, 가선 견우, 가암태기 가선 한일, 가선 월정
 가선 채징, 가선 충밀, 가선 면정, 가선 평규, 승정대부 최익중
 성암인혜 낙운등수 가선의수, 흥국사 송광사 대흥사 태안사 감로사
 파근사 선국사 실상사 화엄사 송천사 옥룡사 만흥사 향림사 동화사
 쌍봉사 보림사 도갑사 쌍계사 개흥사 천관사 대둔사 미황사 불갑사
 운흥사 불회사 개천사 정수사 만덕사 석천사 만연사 서봉사 용천사
 용흥사 능가사 금탑사 관음사 적상사 원통사 영남 표충사
 동하쌍계사 다륜사 백천사 옥천사 청곡사 운흥사 화방사 용문사
 엄천사 문수사 군자사 지곡사 장수사 용계사 금룡사 대승사
 간성 건봉사, 양양 신흥사, 대원무외, 영취산인, 혼영, 읍거통정
 성선중, 가선 진옥 산중종사 우행 신활 지인 경척
 시주지 통정 래언 불고 도감통정 출신 유나 가선 봉□ 찰중 통정

근혜 전함 지탄 전비시도감 숙준 환혜 직명 축령 진운
래철 축성 한일 휘준 휘선 익총 지전 감활 경성 만권
준식 소희 서기 소현

운석시소임 금활 취한 면활

농대가첨승권기서 육백대중공위역부

삼강 신책 견총, 승선 연화 도감 가선 회준, 별좌 본유
공궤 정옥 내왕 서진 경래각원 이세득 김덕리 이춘방
석공 이명득 평산석

3. 정기간행물(定期刊行物)

3.1 신문(新聞)

1) 동아일보[1934년 1월 3일]

[仙岩寺]順天郡雙岩面竹餘리에 所在 千三百餘年前 新羅時에 創建. 現在 僧侶 約二百名

3.2 잡지(雜誌)

1) 조선후보[1917년 3월]

工藝史料としての仙巖寺の昇仙橋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編者略歷

서울大學校 農科大學 農工學科卒(學訓團1期)
建國大學校 大學院 農工學科卒(碩士)
大韓佛教曹溪宗디지털大學 信徒專門教育過程卒
前)農漁村振興公社 研究委員(技術士)
安養鄉土文化研究所 研究員[2011~2013]
現)韓國農村研究院 顧問
全州柳氏季允公派宗親會 理事
編著 불교의 첫걸음, 도서출판 새론[2009]
선종수찰 봉은사 고문헌집[2012년]
교종수찰 봉산사 고문헌집[2012년]

順天 曹溪山
仙巖寺 古文獻集

編輯日：2015. 7. 5.

編者：法雲 柳基松

發行處：傳統寺刹研究會

住所：京畿道 安養市 東安區 冠岳大路 121
108-903 [飛山三星來美安]

電話：010-6303-3125

非賣品